



이웃 종교

RELIGION

“참 신앙으로 봉사하세요”

가톨릭·원불교·개신교 지도자 신년메시지

경인년 새해를 맞아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등 이웃종교 지도자들이 신년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한결 같이 참다운 종교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정진석 추기경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면 행복

전주교 서울 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사진)은 서울대교구 주간 소식지인 '서울주보' 1월 1일자를 통해 신년메시지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희망찬 2010년 새해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문제는 행복이 아닌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이들이 그릇된 욕심으로 화를 부르고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이제 정 추기경은 “예수님께서 사신 가난한 삶이든 겸손한 자세로, 그릇된 욕심과 애착을 갖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비운 삶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다고 가르친다”며 “행복은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마음의 자세로 좌우되는 것이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위로와 희망도 발견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원 교정원장

법문과 생활 하나 되길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사진)은 새해를 맞아 “제가 출가 전 교도님들



과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의 건강과 행복, 법력 증진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 교단은 원불교백년성업을 6년 앞두고 있다. 종법사님을 위시해 전 재가 출가가 이 일의 원만 성취를 위해 지심 기원하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교정원은 앞으로 3년의 교정을 자율과 책임, 공의와 협력의 정신이 교단 전체에 확산되고 대중사님의 교법정신에 입각한 교단의 제도운영으로 교화대불공·백년성업·교단혁신을 통해 튼실한 교단, 주세교단의 역할을 다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김 원장은 “교화대불공은 종법사께서 경륜으로 제시하신 교단적 방향으로 교단 백년의 핵심적 의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사께서 교화경륜으로 내놓으신 교화단과 혼련의 교법정신을 철저히 현장에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교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엄신형 목사

새 사명을 헌신과 열정으로

이내의 기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목사·사진)는 2010년 신년하



례예배를 갖고 민족의 미래를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열정으로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기총은 1월 4일 오전 여전도회관 2층 루시움에서 교계지도자와 한기총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신년하례예배를 가졌다.

이종호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정금출 장로(공동회장)의 대표기도와 박홍자 장로(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으로 엄신형 목사가 “앞을 향하여”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삶은 전쟁터이자 일터이며 경주장이다”라며 “전쟁터에서는 신앙으로 승리하고 일터에서는 충성하며 경주장에서는 앞서가 본을 보임으로써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2010년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내의 기사

“사랑과 나눔 정신 되새겨요”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년 추모행사 ‘다채

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주교 서울대교구가 다양한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서울대교구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주기인 2월 15일부터 예수부활 대축일을 한 주 앞둔 주님수난성지주일인 3월 28일까지를 공식 추모기간으로 지정했다.

추모기간 동안 서울대교구는 15일에는 명동대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을 주제로 추모미사를, 21일에는 용인공원묘원 성직자 묘역에서 추모미사를 봉헌할 예

정이다. 이 밖에 김 추기경 생전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사진전, 유품전, 소장미술품전 등을 열어 김 추기경의 자취를 따라가보는 행사를 마련했다.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주기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병철 신부)’는 “김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추기경께서 몸소 보여줬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미사와 다양한 추모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내의 기사

돈만 기부? 이제 기술도 기부야

‘서울디딤돌 사업’ 눈길... 불교계 옥수복지관 등 14곳 참여

돈이 아닌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기부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신개념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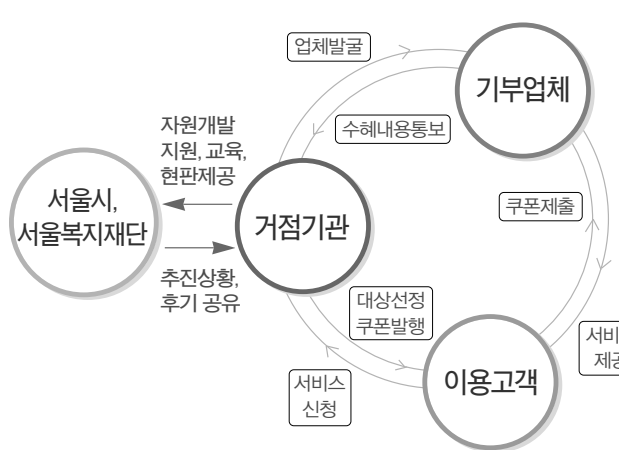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저소득층 주민과 각종 상점, 기업을 직접 연결해 실시중인 복지서비스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이하 서울디딤돌)’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는 2008년 8월 서울시내 87개 복지시설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125개의 기부업체와 함께 서울디딤돌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거점기관들이 병원, 약국, 학원, 극장,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등 인근 중소규모 상점의 기부를 이끌어내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과 인연을 맺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디딤돌사업은 시행한지 17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개 거점기관과 2333개 기부업체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 속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딤돌사업은 특정 거점기관이 지역주민들의 추천이나 자발적인 신청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한 것부터 시작된다. 선정된 저소득층 시민, 홀몸 노인, 소년소녀가장은 거점기관에서 발행한 쿠폰(바우처, 지불 보증 전표)을 수령해 해당 기부업체의 서비스와 물품을



무려나싼값에 지원 받는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에는 ‘아름다운 이웃 ○○호점’을 달리는 현판이 붙으며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불교계에서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14곳이 참여 중이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순덕(75세·서울 성동구)씨는 “복지관에서 받은 쿠폰을 이용해 자장면이나 갈비탕을 먹고 목욕탕과 미용실도 이용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챙겨주는 사업이 동네에 많아서 참 고맙다”고 말했다.

디딤돌사업의 특징은 사업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이 현금을 내거나

특별한 형식에 맞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를 들면 ‘매월 5명에게 갈비탕 한 그릇씩 주기’나 ‘매월 2명에게 환원 수강권 제공하기’처럼 업체별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마음만 으면 작은 정성을 주변에 나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딤돌사업을 통해 월 100명 이상의 지역 내 어르신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 온 ‘이상희 헤어샵’의 이상희 원장은 “처음에 디딤돌사업 홍보지를 보고 옥수복지관을 찾게 됐다. 내가 가진 기술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

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복지관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시간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배운 기술로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다.

옥수종합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은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지역 내 기부업체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디딤돌 사업은 한정된 서비스제공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서울디딤돌 홈페이지(didimdol.welfare.seoul.kr)에서 가까운 거점기관을 찾거나 서울복지재단(02-2001-0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내의 기사

지역	기관명	연락처
강남구	능인종합사회복지관	(02)571-2988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	(02)466-6242
광진구	자양노인복지관	(02)458-1664
구로구	공동종합사회복지관	(02)2613-9367
구로구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7
도봉구	서원종합사회복지관	(02)3494-4755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32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02)915-9200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02)965-0161
성동구	옥수종합사회복지관	(02)3494-4755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영등포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02)831-2755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02)742-9500

다문화 통합 기본법 제정·발의

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 진영 의원 밝혀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姓)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를 존중하는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이 발의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자문위원장인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구립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영 의원은 “2009년 5월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10만

6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섰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이주인 숫자가 2050년에는 1000만 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 등 공공기관은 헌법 제6조 및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행위를 감시·감독하며, 인종 차별 행위의 금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및 행정 시스템의 정비가 미비한 실정”이라

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 정책의 실무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보호시설과 다문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문화 통합 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이런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대수가 법안 제정 사실을 모르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다문화 찬성론자들끼리 법안을 만들고 발의를 한다’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것도 법률 정작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내의 기사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광진노인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병)은 노인들의 정신안정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건강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을 모집한다.

복지관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도우미, 사서도우미, 사랑나눔복지도우미, 교육강사, 암마순간병도우미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2월 10일이며 복지관에 내방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02)466-6242

이내의 기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서울도량 개원법회 및 신입생 모집

우학스님 (불교대학 학장, ‘저거는맨날고기묵고’ 저자) 직강 (동안거 해제 후)

- 1.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2. 누구든 동참 환영

◆ 개원일시 : 2010년 1월 23일(토) 오후 2시

◆ 위 치 : 제기동 불로장생타워 4층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2번출구)

◆ 신입생모집 1기 - 매주 화요일 오전반 1월 26일(화) 오전 11시

2기 - 매주 목요일 저녁반 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